

목동 11단지도 안전진단 통과 월계시영 등 '재건축 도전' 바람

6·9·5단지 이어 네번째 확정
재건축 기대감 아파트값 오름세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재도전 공식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 재건축 확정 소식에 이어 11단지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자 목동일대 아파트 시장이 기대감에 들떠 있다. 여기에 안전진단검사서 고배를 마셨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노원구 월계시영(미성·미릉·삼호3차)아파트도 재건축 재도전에 나선다.

16일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11단지는 지난 15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51.87점)을 받았다. 6·9·5단지에 이어 네 번째다. 6단지는 12일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점수(100점 만

점)에 따라 A~E등급으로 나뉜다. E등급(30점 이하)을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31~55점)이면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한다. 적정성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시설안전공단이 한다.

목동11단지는 1988년 준공된 32년차 아파트다. 총 19동, 159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계남초와 목동고 등을 품고 있고 서울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이 인근에 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운데 입지가 우수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동11단지 뒤를 이어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곳은 13단지다. 13단지는 지난 3월 정밀 안전진단에 착수했다. 결과는 다음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다. 이외에도 14단지, 1단지, 7단지 등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아파트 매매 가격도 오름세다. 현지부동산중개업소

에 따르면 재건축이 결정된 6단지는 지난해 11월 13억4500만원에 거래된 전용면적 66㎡가 14억원에 매물이 나오는 등 호가가 상승했으며 지난 5월 재건축이 결정된 성산시영아파트는 전용면적 50㎡가 9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5월 8억8000만원에 최고가 거래됐다. 재건축 확정 전인 4월에는 7억5000만원에 팔렸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희소식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월계시영 아파트도 안전진단 재도전을 공식화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 모임(올재모)은 지난 13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프라자상가 광장에서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 재추진을 결정했다.

강남 재건축 '잠룡'으로 불리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서울의 대표적인 초기 재건축 단지다. 1988년 준공한 이 단지는 5540가구 규모로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으나 재건축이 어려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단지가 6·9·5단지에 이어 네 번째로 정밀안전진단검사를 통과했다. 목동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올재모는 오는 7월 말까지 정밀안전진단 비용 모금을 진행하고, 모금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송파구청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재모에 따르면 현재 3억여원의 비용 중 1억3000만원을 모금했다.

노원구 월계시영도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단지 역시 지난해 10월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 이 아파

트는 1986년 준공됐다. 총 32개동, 3930가구다. 단지 규모가 커 마포구 성산시영(3710가구)과 함께 '강북 재건축 최대어'로 꼽힌다.

이은형 대한정책건설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서 재건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한다"라며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 올림픽선수촌아파트나 월계시영 아파트도 목동과 같은 가격 상승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포스코건설, 1668억 '주양쇼핑' 재건축 수주

디에이건설과 함께 공동 수주
강동구 명일동 중심 상업지역
지하7층~지상 29층 2개동 건축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 투시도.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최근 공사비 1668억원 규모의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명일동 복합시설 건립공사)'을 수주했다.

서울 강동구명일동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은 지하 4층~지상 8층 상가 건물을 지하 7층~지상 29층 2개동 주상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4년 준공예정이다. 지상 4층까지는 상가로, 5층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768실)로 구성된다.

포스코건설은 이 사업을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에이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수주했다. 주양쇼핑 재건축 사업은 최근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신축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

용을 받는 대규모 상가 재건축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집합건물법은 건물 한 채에 다수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 많아 지면에서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1985년 4월 시행된 법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

은 건물이 재건축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재건축(4분의 3) 사업장 보다 더 강화된 구분소유자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신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아파트 재건축과 달리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설립 안전진단, 조합설립 등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업 수주를 계기로 건축연한 30년을 넘긴 상가건물 등 노후된 집합건물 재건축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장만 재건축위원장은 "사업지 주변으로 우수한 교통·교육 등 생활인프라 환경이 갖춰져 있고, 고덕비즈밸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데다가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예정이어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드론촬영 지역조감도, 고화질 단지소개 등 삼성물산 사이버 견본주택 최신기술 주목

'래미안 엘리티니' 콘텐츠 돋보여



래미안 엘리티니 투시도.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지난 12일 개관한 '래미안 엘리티니'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지만, 실물 견본주택을 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연계된 첨단 시스템, 동대문구 최초 커튼월북으로 구성된 차별화된 외관,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안내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래미안 엘리티니 사이버 견본주택은 사업지 공식 홈페이지에 마련됐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단지개요, 분양안내, 입지·평면, 홍보영상 등 상세한 정

보를 확인 가능하다.

지역조감 VR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해 사업지 일대 인프라인 360도로 볼 수 있는 단지부와 10층, 21층에서의 우수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고화질 단지소개 영상도 시선을 끈다. 특히 래미안 엘리티니 모형을 생동감 있게 촬영해 커튼월북, 옥탑프레임 아트조명, 컬러 프레임 입면 분할 창호 등 차별화된 외관을 디자인을 확인할 가능하다. /정연우 기자

DB금융투자

ELB·DLB 등 3종

DB금융투자는 19일까지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기타파생결합사채(DLB), 주가연계증권(ELS) 등 3종을 판매한다.

원금지급형 상품인 ELB·DLB는 지난해부터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고객과 DB금융투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중인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이밖에 코스피200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B 해피플러스 ELS 제2170회'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SK證,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CTCN 가입

국내 금융사 최초 승인



SK증권은 16일 전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에 회원기관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CTCN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2013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기술 지원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곳이다.

SK증권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탄소 배출권 사업진출,

세계자연기금, UNGC(UN Global Compact), 탄소공개프로젝트가 주관하는 SBTi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녹색채권 발행 등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활발히 펼쳐 온 점을 인정 받아 가입이 승인됐다.

SK증권 관계자는 "국내에선 최초 가입"이라며 "이번 가입으로 해외 신사업 진출과 기후변화대응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

KB증권, 개인고객 대상 발행어음 출시

KB 에이블 스텝-업 발행어음
기업 대상서 개인고객 확대 판매

KB증권은 'KB 에이블 스텝-업(KB able Step-Up) 발행어음' 상품을 개인 고객 대상으로 확대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KB able Step-Up 발행어음'은 가입 시 KB증권의 3개월 만기 발행어음을 1년 이내 범위에서 3개월 만기 시마다 간편하게 채투자되도록 한 상품으로 지난 3월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2000억원이 전액 완판된 바 있다.

'KB증권 able Step-Up 발행어음' 상품이 가입하는 개인고객은 가입 이후 3개월 만기 시마다 위약금 없이 상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 가입 유지를 결정하면 수익률이 상향된 3개월 만기 발행어음을 가입 당시 약정 수익으로 재매수할 수 있어 중장기 발행어음을 매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고객 대상으로 신규출시되는 'KB able Step-Up 발행어음'은 가입한 개인고객에게 1년 동안 3개월 1.00%, 6개월 1.05%, 9개월 1.10%, 12개월 1.15%의 수익률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손범기 기자 sonumij301@